



초대의 말씀



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 모의유엔 (GAIC-MUN: Gyeonggi Academy International Conference-Model United Nations) 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동안 개최됩니다.

모의유엔은 유엔회의를 모방하여 실전처럼 해보는 회의를 말합니다. 참가자들은 의장, 의원, 기자 등의 역할을 맡아 안보, 개발, 환경, 인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기자단은 이러한 회의과정에 참석하여 기사작성, 인터뷰, 사진촬영을 하여 신문을 발행합니다.

경기외고 국제 모의유엔은 학생들이 직접 사무국을 구성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합니다. 또한 국내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을 초청하며 매년 8월 경기외고 캠퍼스에서 2박3일간 숙박을 하며 각 위원회별로 설정된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합니다. 특히, 올해는 고등부3개, 중등부6개 등 총9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며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의장, 의원, 기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로 진행하게 됩니다.

올해 GAIC-MUN의 슬로건은 'Action for Humanity' 입니다. 이는 UN의 근본 설립목적을 돌아보고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인류애라는 궁극적인 공동목적을 통하여 다시금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에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큰 슬로건 속에서 테러, 조세회피, 빈곤, 난민, 성차별, 문화유산보존,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유엔의 지속발전가능개발목표 SDGs와 부합하면서도 지속적인 주요 쟁점 사항들을 아젠다로 설정하였습니다.

세계시민으로 글로벌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협상 및 발표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올바르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안목을 기르기 위한 경기외고 국제 모의유엔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7년 4월

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이 병 호

이 병 호